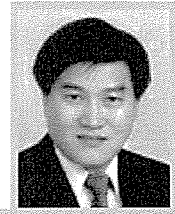


나도 모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주)인텔리코리아/대표이사 박승훈

필자는 지난 해 정보처리전문가협회가 주관한 S/W 공모대전에 응모한 경험이 있었는데 금년엔 본 협회 관계자의 추천으로 회원 가입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학 졸업 후 만 20년간 CAD업계에 종사해 온 필자는 우리나라 CAD 발전상에 대하여 할말도 많고 뒷 얘기도 많지만 이는 접어 두고 최근 경험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첫 직장에 병역특례로 입사한 81년 말에는 외국 등 다른 장소로 정보를 제공하려면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발송 외엔 별다른 통신 수단이라곤 Telex가 고작이었다. (이는 지금의 컴퓨터에 입력한다면 아마 2~3백 KB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업체를 방문하고 늦은 시간에 회사에 돌아오면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기도 하려니와 국내 원천기술이 전무했던 그 시절엔 외국에 CAD 관련 장비들을 발주하고 또한 기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산공단 등 업체 방

문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 거의 한 나절이 걸렸고 피곤한 몸으로 늦은 시간에 회사에 돌아오면 텔렉스 오퍼레이터는 퇴근한지 오래고 그러나 납기는 맞추어야 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1학기 이수하였지만 컴퓨터 자판이라곤 직접 두드려 본 적도 없으려니와 단지 책에서 키보드의 생김새만 확인했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기계 작동법을 홀로 터득하여 손가락 하나로 자판을 타이핑하는 생각이 엇그저께 같다. 그나마 전자공학을 전공한 필자는 학교에서 팩시밀리라는 기계를 학술적으로만나마 배운 바 있었지만 아직 상업용으로는 출시한 회사가 없던 그 시절을 상상해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일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84년도에 처음 시장에 등장한 팩시밀리의 위력을 실감하였지만 아마 텔렉스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한 번이라도 오타가 있으면 다시 테이프를 걸어 교정하는 작업 때문에 팩시밀리의 위력에 대하여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팩시밀리 사용은 현격하게 불편한 고물단지로 변하게 될 것 같다.

필자는 최근 사랑하는 직원들과 CAD 신제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가 있다. 한글, 영문, 일어, 중문, 아랍어판을 동시에 Launch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보니 개발과 인스톨 프로그래밍 과정을 서울본사와 미국지사가 분담하여

동시 개발해야 하는 관계로 개발 막바지인 지난 2주 동안 150Mb가 넘는 파일들을 수 차례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PC Anywhere, 무료 국제전화, FTP, PC Camera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라는 시차와 장소를 극복하면서 쉽게 일을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2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작금의 첨단 장비들과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문명의 혜택을 톡톡히 제공해 주는 대신 해킹 등으로 골머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동일한 연구소 내에서 일하는 수준과 별반 차이 없이 개발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과정 중에 서울의 근무시간에 미국 개발자는 밤잠을 설쳤고, 회사 내에 침대까지 준비해 둔 본사 개발자들도 미국에서 걸려 오는 무료 전화 덕분에 장시간 동안 잠 못 이루는 서울의 밤과 LA의 밤을 만끽해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국내 시장을 목표로 개발을 해 왔지만, 최근 벤처기업들이 속속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지구촌을 대상으로 개발을 착수하는 경향이 크게 높아진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필자 회사 역시 국내용으로 개발을 착수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다국어 버전 CAD 프로그램을 개발, 세계시장을 타겟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일어, 독일어, 프랑

스어 등의 위력이 감소하고 영어라는 하나의 통일된 언어 중심으로 바뀌는 세상이 되었고, 대부분의 4~5십대의 한자 문화권에 익숙한 아날로그 세대에겐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더해 주곤 한다. 따라서 한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디지털 세대에게 핵심 요직자리를 넘겨줘야 할 판이다. 신문은 한자가 사라진 지 오래고 명함에 한자를 사용하면 어딘가 촌스러워 지는 같기도 하며 신세대들은 읽기조차 거북스러워한다. 영어 이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거리의 간판은 온통 영어 형태가 일색이며, 이메일 주소가 명함에 없으면 상대의 얼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한다.

필자는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동되고 우리가 첨단 장비나 윈도 운영체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더라면.... 아마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입사 당시에 빌 게이츠라는 이름을 들어 본 바가 없었듯이 지금 우리의 초등학교생이 앞으로 20년 뒤에 세계를 점령하는 세상이 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어 배우느라 아이들을 캐나다,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까지 하면서 3D 직종의 현장에서 어렵게 돈을 버는 현실이 70년대 많은 근로자가 중동에 돈벌이를 나간 지금의 6~70십대 노년층들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선진제국들은 첨단장비들을 무기로 하나의 지구촌

을 외치고 있지만 중동 파견자나 불법 체류자들의 눈엔 오늘날의 지구촌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추어 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24년 전 학부시절에 전자공학도 이면서도 컴퓨터 조차 구경 못하고 졸업한 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발이 가능한 오늘날의 첨단 시스템의 위력을 만끽하면서 다른 이면에는 아직도 컴퓨터 문명의 수혜는 커녕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과 아이들을 새삼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